

2005 전여대협 선거정책모임

1) 선거에 임하는 자세

선거란 광범위한 학우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선거시기만큼 학우들을 많이 만나고 총여학생회와 여학생운동을 깊이 있게 알려내는 공간이 없다. 대중들을 가르치기 보다는 여학우 대중들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학우들을 만나고 여학생운동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진행하자. 가장 값진 학우 검증의 시기에 여학일꾼들의 헌신성을 발휘해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자. 바쁜 시간과 일정 속에서 지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동지의 힘듦 보다는 나를 앞세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선본 차원에서 동지애를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 정세 발전의 요구 - 6. 15시대에 걸 맞는 운동대중화 실현, 여성들의 자주적 진출의 확산
- # 운동발전의 요구 - 학우 조직화를 통한 총여학생회 강화, 여학생운동의 정 방향 설정

2) 2004년 여성계 핫이슈

- 1 아내장간 인정 판결 8.22
- 2 성매매방지법 시행 9.23
- 3 위안부 누드사진 2.12
- 4 4·15총선 - 여성 국회의원 39명 배출(전체 국회의원의 13%)
- 5 박근혜 대표 패러디 논란
- 6 성인지 예산 편성 - 여자 화장실
- 7 여성의 낮은 출산율
- 8 신데렐라 콤플렉스
- 9 유영철과 달빛시위
- 10 김미화씨 가정폭력(아내구타)

여성의 의식이 높아지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요구들이 실현되고 있는 단계이다. 전여대협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발 빠르게 활동하지 못하였지만, 위안부 누드문제나 학내 총선 활동 등 꾸준히 결합하였다. 또한 매주 여성 관련 신문기사모음을 내면서 여성계 동향을 알리고 노력해왔다. 기사모음이 단위들에서 정세토론이나 일꾼교양과, 학우 선전의식화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2005년 정세

전체정세/ 해방 60돌, 국보법 폐지, 광범위한 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통한 통 큰 투쟁 <짧게 정리했으니 다른 많은 정세자료들을 참고하세요~ ^^ >

2005년은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는 해이다. 반미자주화에 떨쳐나선 민중들의 정치 조직적 역량이 확대, 강화되고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광범위한 통일애국역

량의 단결된 힘이 발휘될 때 그 기반 위에서 외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자주공조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자주통일로 진입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 가는 기본 축은 6.15 남북공동선언이고 정세 건인의 주체는 전체 우리 민족이다.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화해 미국의 전쟁책동을 파탄내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해이다. 2005년 미국은 중동지역의 전쟁을 시급히 수습하고(수습은커녕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첨단 군사장비들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핵 선제공격 준비를 완료하여 연일 전쟁연습을 벌이며 북한을 위협하면서, 외교적 통로를 통해 리비아식 항복도 강요할 것이다. 만약 이 강요가 통하지 않으면 곧바로 핵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한반도에 핵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이것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을 하던, 아니면 케리가 당선이 되던 그 방식에서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침략과 약탈을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으며 미국의 제국주의는 부시가 재선되건 케리가 당선되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방식의 선택에서 약간의 차이일 뿐이다.

우리 민족은 북한의 통일애국단체들이 제안한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구성에 적극 호응해 나서 전 민족적 차원의 주한미군 철수의 조직적 무기를 마련하고 전체 민족이 한결같이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떨쳐나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친미사대 수구세력들이 정세역전을 꾀하려 획책하는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적 준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도 지난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이어 전체 민중을 민족자주 실현의 선결과제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성정세/ 공동선언 이행, 해방 60돌 사업

주한미군 철수, 자주통일 원년의 해에 여성들의 투쟁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여성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여성과 통일에 대한 연관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우들의 의식을 더욱 높여나가는 해가 될 것이다. 치욕스러운 역사, 대를 넘기지 말자는 각오로 자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내년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 계속 되고, 미 대선이후 부시 당락에 따라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이복의 넓은 관용과 평화 정책으로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 등이 큰 틀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우리 민족의 반미자주투쟁으로 승승장구 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성고문 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전쟁의 피해는 바로 우리 여성들의 문제이다.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대상, 난민이 되고 있다. 한반도 전쟁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인해 겪는 여성의 피해와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더 많이 알려가는 과정에서 여학우들에게 평화감수성을 기르는 작업들을 해가야 한다.

지금 단계는 여성 사안에서 남녀차별금지법, 성폭력특별법, 고용평등법, 성매매방지법 등 민주적 과제가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 여성단체들도 자주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갈 것이다. 법적 투쟁은 올해 마무리 되는 단계, 내년은 자주의 과제를 내세우자. 각계 시민단체가 하나로 결집되는 분위기, 우리 여성들도. 올 초 파병 철회 여성행동, 국가보안법 철폐 여성 실천단 등의 활동과 경험으로 연대, 신뢰가 더욱 높은 수준에서 펼쳐져야 한다.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여성들의 하나의 구심, 연대체에 대한 요구가 높다. 내년은 서로간의 사업연대에서부터 공동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의 조직을 필요로 하는 정세이다. 공동의 인식, 공동행보를 취하기 위한 부분에서 전여대협의 해야 할 몫이 크다. 여성단위들이 모두 다 요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므로, 논의들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전여대협이 다해나간다.

2006년 지방자치선거를 바라보면서 정치세력화를 다그쳐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를 보면 같은 정치인이라도 여성

은 인맥, 뇌물 등에 연루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부패지수가 낮다고 한다. 당벌 비례대표 30% 여성 할당제도 실현 한 만큼 향후의 정치무대에서의 여성들의 강세와 자주적 진출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의 조직적과제는 너무나 많다. 내년은 새로운 학생운동을 만들어가는 해이다. 일꾼들의 인생관 자세 문제와 새 일꾼들을 발굴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또한 달라진 학우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성매매와 우리의 성의식에 관련한 전 사회적 토론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 대책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성매매문제는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투쟁이다. 학우들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반발로 짐작촌 업주들의 단식투쟁과 헌법소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꾸린다.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사회회, 한국여성단체 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총 124개 단체(10월 21일 현재)가 참가한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시민연대 준비위(가칭, 이하 시민연대)는 오는 11월 발족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민연대는 “불법수익구조를 차단당한 업주들의 집단반발과 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이 위험 수위”라며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와 일부 정치인들의 법에 대한 몰이해, 반인권적인 발언 등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의 정착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의 성매매 방지법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자발/비자발로 나누어 비자발 여성만 보호받게 한다든지, 자활대책이 부족한 부분 이던지 하는 문제는 여성들의 연대와 활동으로 계속해서 개정해나가야 한다. 더 많은 학우들을 만나고 성폭력 성매매 근절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학내 성의식과 성문화 개선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여론사업이 필요하다.

호주제 폐지는 이미 대세이다. 유럽에서 관습헌법으로 헌법소원을 낸다는데, 관습헌법의 남용은 현재의 상황에서 무리이다. 사람들에게 관습헌법론은 헌법재판소가 시대를 거스르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고, 하반기 국회 본회의 안전에 올라가있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두고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 여성계는 가족의 범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과 부성원칙주의를 부모의 협의에 따른 선택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여성계 의견을 반영해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안과 다른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삭제했으며, 자녀의 성도 부성원칙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바꿨다. 친양자 제도에 관한 규정도 친양자의 나이를 7세 미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에게까지 동의를 얻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성매매 폐지방지법 시행에서 보았던 익숙한 것을 바꾸는 과정에는 많은 논란이 따른다. 호주제를 우리의 전통으로 바라보는 학우들도 아주 많은 상황이고, 부모 성 함께 쓰기에 대한 이해부족도 많이 있다.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학우들과의 얘기나 평등가족, 올바른 가족의 상에 대해 전 사회적 토론을 벌여가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

해방 60돌이 될 때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도 친일청산법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큰 과제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일 법안이 아니라 작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문제는 남북의 민족적 과제이며, 과거사 청산문제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위안부 할머니의 피맺힌 호소로 10월 22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가가 해야 할 건

상규명과 피해보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연대회의가 활동을 계속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개정운동으로 인한 반성폭력 운동 활성화

대학 내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과 구성원들의 논의를 활성화하면서 대학 내 제도를 강제해 나갈 것이다. 학내 여학생운동단위와 여성단체와의 폭넓은 연대 사업으로 교육부 차원에서의 반성폭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성폭력 학칙의 실질적 개정을 일구어낼 것이다.

여성 노동권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이 성매매,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얼마 전 바뀐 법에 의하면 여성노동자가 더욱 더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져서 여성비정규직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핵심은 '성별 직종분리'와 '여성의 비정규직화(여성노동자 70%가 비정규직)'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 대다수의 비정규직화는 다수의 여성근로빈곤층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우리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렇지 않다.

파견업종 전면 허용은 “급속한‘여성의 파견노동자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여성직종과 부서들이 급속하게 파견으로 전환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파견노동자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고착화시켜 성차별 확대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은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하고 심화시키는 반여성적 노동정책”으로 보인다. 차별금지 및 시정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이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 이 법에 의한 차별구제를 요청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2.4%(여성 1.2%)에 머물고 있어 집단적 보호도 어렵다.

여학우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은 높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스스로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을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지금 비정규직 차별철폐 여성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역 여성단체들이 단결하고 있다. 내년 여성노동자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핵심적 투쟁과제로 삼고 투쟁을 펼쳐 갈 것으로 보인다.

여성 농민

하반기 여성농민이 주축이 되어서 통일선봉대로 다녀오고 쌀 투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내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시점이지만, 현재 극비리에 협상을 종료하려 하고 있으며 11월안에 정부입장을 내비칠 전망에 있다. 11월 13일 민중대회를 기점으로 하반기 민중생존권 투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협상안을 내더라도 결사저지의 각오로 내년 투쟁을 준비해나갈 결의를 다질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쌀 수입, 농산물 개방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 농활성폭력 사건으로 불붙은 여성운동, 성폭력에 대한 논의들을 내년은 농민회 간부 교양과 전여대협과 전여농, 전농 등 전체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성과들을 남겨가야 할 것이다.

4] 2005년 여학생운동 방향

여대생의 상황은 어떤가?

아직 결혼임신육아노동에서의 불평등 같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살

아가면서 임금의 절반을 착취당하고 언제나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을 자신의 문제로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의 진로를 꾸리려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결혼과 육아, 퇴직 등의 차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대생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에서 바라는 꼴한 사람, 꼴한 여성,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지고 만들어지는 여성이미지에 동의하면서도 스스로의 현실에서 실천해가지 못하는 괴리현상 또한 겪고 있다. 삶에 대한 자기 욕심이 많고 참여하려는 세대인 만큼 자기의 요구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 또한 있다. 여대생들은 연애에서 불평등과 편향을 겪고 있다. 남성애의 의존, 성관계의 피동성, 낙태문제가 심각하고, 성교육, 피임교육 등이 필요하다.

- 2004년 우리 학교 여대생들의 특성과 정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여성, 미래에 희망을 비추자!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은 당사자 운동이다. 여성운동에는 여성들이 풀어가야 할 고유의 과제가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분단 상황에서 사치라고 느끼는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 개량주의라는 굴레를 씌우려는 흐름까지 있다. 단순히 여성들이 모여서 통일운동을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대중과의 괴리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여성들의 관점으로 고유의 목소리로 녹여내어야 한다. 그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말하기라는 관점의 전환이다.

사람에 사람을 늘려가는 사업과 투쟁으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일 될 것이다.

계획된 대중투쟁과 대중조직화 사업, 지속적 사람사업

- 대중 의 조직화 사업의 핵심 -> 일회성, 노가다성 사업을 진행하며 힘을 빼는 것 보다는 기흥발동을 제대로 시켜내는 성과 있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전체적 상승곡선을 그리는 대중 의조직화를 진행하자.
- 대의체계를 통한 기흥 발동 - > 총여학생회 하방을 강화해야 한다.
- 정세에 맞는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 전여대협 대오로의 집중성 있는 모습 -> 전여대협 투쟁에 큰 흐름을 만드는 식으로 큰 모를 박고 그 때 그 때 정세에 따라 학내사업을 잘 진행하자.

조직 사상 강화 방도

- 공간일꾼 의 조직화 계획 마련 : 운동권 내 양성평등 교육의 활성화, 문제제기의 일상화,
- 일꾼 학습 계획의 전일적 체계 구축
- 소모임의 전일적 건설을 통한 일꾼 발굴과 재생산.
- 과 여학생부 강화를 위한 총여학생회 지도
- 일꾼들의 인생관 자세의 전환

5] 공동공약제안

1. 여성학 학교

여성문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대중강연회를 학교별로 꼭 진행하자.

- 의의 : 한층더 안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제도화 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학교마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소모적인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역량을 합치고 인식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 대학에 들어 온 새내기, 학우들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교양사업으로 진행하자.

- 일정 : 학교 사정에 따라 당일 혹은 1박 2일로 진행하자. 꼭 여성학 학교를 개최하기 힘들때는 총학생회 대중강연회에 여성관련 주제를 꼭 첨가시키거나, 새터 때 전 단대 강연을 정례화 하는 것으로 진행하자.
- 제목 : 꼭 여성학 학교가 아니어도 되고, 창발적으로 정하면 된다.
- 조직화 : 총여학생회 일꾼 발굴의 목표를 두고 학교에서 관심이 있었던 학우들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바로 대중사업을 통해 묶어나가는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 모인 학우들은 소모임 모집, 집행부 등으로 묶자.
- 강연주제 : 학우들의 구미에 당기고 그 때 그 때의 정세에 맞는 내용이 제출되어야 한다.
- 강사 : 여학단위 예서의 관점 좋고 인지도 있는 검증된 강사 추천이 필요하다. 간혹 인기는 있으나 관점을 제대로 몰라 낭패를 볼 수 있다.

2. 여대생 실업 해결을 위한 여성노동박람회

3 8 혹은 5월 메이데이를 준비하면서 전 단위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와, 여대생 실업의 문제를 학우들과 함께 얘기해보자. 다른 여성단위들과 함께 여대생 실업대책위를 꾸려서 대책위 사업으로 특화시켜 진행한다.

방향 :

-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알려내며,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하자.
-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을 반미, 반제투쟁으로 상승시키자.

의식화 내용 :

- 노동의 중요성, 여성들의 노동의 역사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제국주의 경제침탈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여대생 실업의 심각성

상 : 중앙에서 내용을 제출하면 단위학교별로 만들자. 전여대협 중앙에서는 여성노동에 대한 몇 종 포스터나, 선전 의식화 내용마련, 눈을 끄는 조형물에 대한 창작 등을 제출할 것이다.

3. 7월 (2회) 여성역사기행

2004년 진행한 '1회 여성역사기행' 사업의 성과를 이어 2005년 '2회 여성역사기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 여대협은 '2회 여성역사기행'을 통해 여성들의 역사를 알려내고 여성의 자주성을 상기하며, 여대생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여성학 소모임, 학우들, 여학생회 간부들이 여성운동을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꾀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행이라는 사업을 통해

- 잊혀졌던 여성의 역사를 알려내고
- 구체적인 여성상을 모색하면서
- 대학 여학생들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 남학생들도 여성운동을 이해하며
- 대학 여학생운동 핵심인자를 육성 발굴할 것입니다.

일정은 작년의 코스를 조금 줄여 다시 시행해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해 더 전국단위로 시행하고 다음해부터는 지역별, 학교별로 진행하면서 가까운 지역여성인물 발굴, 지역어른 등 환기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 제목 : 2회 여성역사기행

- 일시 : 7월 11-14일

- 일정 :

11일 경제 허물기, 마음 트고 함께 꿈 가꿔가기 : 1시 서울 집결, 조 편성, 여성사 전시관, 여성역사 교양, 앞 풀이, 경희대 숙박

12일 가슴 펴고 어깨 걸고 세상 속으로 : 발대식,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강원도로 출발, 강릉대학교 숙박

13일 woman power를 믿는다 : 강원도 강릉 허난설헌 생가, 경포대 해수욕장, 한양대학교 숙박

14일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다시 함께 가자 : 수요시위, 해단식

4. 생리 휴강

- 생리 휴강이란?

생리 휴강은 생리를 하는 여학우에 한해서, 한 달에 하루 생리통이 가장 심한 날의 결석을 공결로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학우들이 생리기간에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와 학교와의 협의 하에 실시하는 제도이며 동아대에서 시행하고 있다.

- 어떻게 시행하나요?

교수님들의 수업권 문제 때문에 단대별 학장과 각 처 장들이 함께 하는 교무회의에서 학생과를 통해 교수님들을 설득하였다. 날짜, 수업이름, 교수이름, 학생이름, 학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종이에 교무처장과 총여학생회장의 도장을 찍어 교수님께 제출한다는 방식을 총여학생회에서 건의하였고 그것이 채택된 과정이다. 하루를 다 결석하는 여학우도 있고, 가장 아플 때 몇 시간을 빼서 한 강의 정도를 빼는 여학우도 있다. 이번 주에 아파서 쉬었으면 다음 주에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 시간에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학기가 끝나기 전에만 내면 교수님이 일괄 정산하는 데 반영한다. 그러나 동아대는 시행하고 한 학기가 지나지 않아서 교수님이 확실히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일꾼과 학우들에게 있고, 확실하게 인정했는지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단계는 아니다. 학우들이 여성문제의 다른 사안보다 아주 관심이 많고, 하루에 5-7명 정도로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다.

-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리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되는 것이 사회 현상이다. 이 땅의 절반인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일수 없다. 생리통이 극심해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여학우들도 많이 있으며 학교는 그나마 몇 개 없는 휴를 제외하고는 맘 편히 설 곳도 없다. 생리 휴강은 단순히 아파서 결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노동자들도 생리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하는 폐지시켜 버리는 모성보호에 대한 물이해를 비판하면서 대학 내에서도부터 여론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나요?

여학우들은 아주 관심이 많고 환영하는 편이다. 시행 초기 남학우들의 반발이 거세고, 가끔 남녀 분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꾸준히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학우들이 이 제도를 남용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 자신의 수업을 포기하면 수업을 듣지 못해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남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루 종일 공결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아플 때 수업 하나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여학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교수님이 정산을 하시기 때문에 남용되면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주기가 공개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총여학생회에서 일괄지급(캠페스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캠프 주요단체에서 배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5. 반성폭력 학칙의 실효성 있는 개정

반성폭력 학칙은 대학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학칙 안에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비용지원과 상담, 학내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대학 본부 차원의 반성폭력정책 및 프로그램의 마련, 가해자 처벌사항에 대한 세부항목 마련과 처벌 강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 성폭력 상담소 전문상담원 배치와 예산 확보 등이 꼭 첨가되어야한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학내 반성폭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성학 강의를 필수 학점화 하는 것에 대한 여론화 작업과, 강의 평가 시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유무 문항을 첨가하는 것을 함께 추진시키면 좋을 것 같다. 특히 필수학점화 하는 부분에서는 학우들이 하나의 수업을 더 들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후 대처보다는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내년 등록금투쟁, 학자투쟁이 마무리 될 때 까지 학우들, 일꾼들에게 공론화시켜내고 우리의 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선거시기부터 활동을 벌여나가자. 현재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에 성폭력 처리 사례, 교육감독 실태 등을 골자로 한 자료요청서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결과에 대한 질타와 전국적 여론작업을 통해서 학칙개정에 대한 공론화를 시키자.

올바른 성교육이 빠져 있는 교육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자.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향후 연대단체와 함께 만들어가자. 대학 내 성문화 개선과 성폭력 근절은 밝은 사회를 향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6. 복녘 평양 빵공장 건립사업

통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웁시다!

통일을 염원하고 후대를 책임지는 여성의 이름으로 복녘 아이들을 위해, 평양에 빵공장 짓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남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마음을 모아 빵공장을 만들고 매달 빵 만들 재료를 보내주면 복녘 여성들이 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을 복녘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다면 온 겨레가 흐뭇해질 것이고,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이뤄가는 통일의 길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겠다는 소중한 마음 담아봅니다.

*평양 빵공장 설립 추진 내용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측 '우리겨레 하나 되기 운동본부 여성위원회'(가칭, 이후 복녘 어린이 영양빵공장 운동본부)의 협의로 남과 북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북측은 평양에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부지 및 건물과 인력을 제공하고 남측은 빵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자가 발전기 포함)일체를 지원하고 원 재료의 공급을 통해 빵을 생산합니다.

1. 빵공장 건립을 위한 종자돈 내기

공장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종자돈을 후원합니다.

2. 매달 빵 생산을 위한 1구좌(5천원) 후원하기

매달 지속적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나아가 빵 생산을 늘여서 더 많은 아이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비용을 후원합니다. 5천원이면 빵 3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소모임 건설

기층건설과 소모임이 여학 단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강조하고 일꾼을 만들어내는 재생산과정이 되어야 한다. 소모임 건설의 역할-일군 재생산,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여학생회 일꾼들이 직접 지도하고 총화하면서 하자. 조직 확대 강화사업으로 매시기별로 내용을 제출, 총화, 점검하자. 잘하고 있는 단위의 모범과 사례에 대해 일반화 시켜나가자.

일꾼들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소모임 건설의 내용과 방도 등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소모임 건설을 기층건설과 연결시켜야 한다. 경희대의 경우처럼 단대나 과차원의 소모임을 꾸리는 것을 권장하고 그걸 꾸릴 수 있는 주체들을 최대한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에만 꾸리는 것으로 하다보면 총여의 역량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배가되는 속도도 빠르지 않다. 사람을 단위에 내려 보내는 식이 아니라 단위에서 사람을 만들어야한다. 순전히 우리 일꾼들로만 다 꾸릴 수 없다. 최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과정으로 거기다 전략적으로 집중할 핵심 단위를 선정하자. 단위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데가 많으니 발굴해보자.

총여학생회 간부와 소모임 구성원의 생활의 분리는 소모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크나큰 한계로 나설 수 있다. 단위로 내려가서 나와 친한 일꾼들을 주체로 새우고 새내기를 받아 그 새내기가 다른 친구들을 조직화 하는 과정으로 만들자. 운영하는 데 있어 방도와 커리큘럼, 활동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여학생회가 없는 학교 총학생회 차원에서 향후 여학생회 건설을 목표로, 혹은 학내 여학우 조직화를 목표로 해서 여성주의 소모임 재정, 공간 지원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소모임의 역할과 2005년 소모임 건설의 중요성

1. 소모임의 위상과 역할

- ① 학우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묶는 생활공동체 단위입니다.
- ②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모아가는 단위가 됩니다.
- ③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를 형성하는 단위입니다.
- ④ 모든 남학우 여학우들을 포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⑤ 실질적으로 많은 단위에서 여학생회 일꾼을 배출하는 역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 ⑥ 학생회 강화에 근간이 되는 대중조직입니다. (자기 본성에 맞는 활동을 보장하는 단위)

2. 소모임 건설의 중요성

- ① 기층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② 핵심발굴과 양성의 장이 된다.
- ③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장이 된다.

3. 2005년 소모임 건설의 중요성과 전략적 고민

1) 여학생회 현황에 근거해서

단과대나 과/학부에 여학생회 또는 주체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학생회 일꾼들을 발굴하고 단련할 공간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2005년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소모임 건설이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소모임을 건설하고 여학생회 두리의 인자들을 많이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2) 소모임 건설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층 단위 건설을 피해야 한다.

총여학생회, 단과대 소모임 건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층단위 건설을 피해야 한다. 그에 따른 계획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실제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4. 2005년 소모임 건설을 위한 제안

- 1) 하나 - 기행 소모임을 건설해봅시다.
- 2) 둘 - 2005년 소모임 학교

기타 총여학생회 대중사업 제안 : 커플 연애크프 - 올바른 연애와 피임은 무엇이고, 양성평등에 대해 얘기하자.